

지역 매아리

김제지평선축제 수도권 홍보

완주군 드림스타트

전북 최초 2회 국무총리 표창

완주군이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 전북지역 최초로 2번의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완주군은 2017년~2018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기본구성,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자원개발과연계, 홍보, 아동발달영역별 맞춤형통합서비스 등 총 6개 분야(12영역, 30개지표)다.

완주군은 지난 2008년부터 드림스타트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 표창 3회를 수상했으며, 지난 2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업시작 10년 만에 2번의 국무총리 표창의 영광을 안게 됐다. 특히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차별과 소외없는 맞춤형'을 실현하려는 민선7기 완주군의 복지정책이 빛을 발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군은 드림스타트 대상자들과 끊임없는 신뢰관계 구축, 전문적인 통합 사례관리, 아동의 안정적인 심리 및 정서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500여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왔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시장, '한국축제&여행박람회 K-Festival' 참가 농산물·명소 알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K-Festival 2019'에 참가하여 수도권을 타겟으로 김제지평선축제 홍보에 나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콘텐츠의 심장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 축제 콘텐츠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들이 함께 직접 참여하여 축제를 맛 볼 수 있는 체질의 기회를 마련하여 축제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날은 박 시장이 직접 '홍보 전도사'가 되어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짬뽕공예, 목공예, 압화공예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김제지평선축제와 김제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김제의 쌀, 잡곡 등 농산물과 누룽지, 고구마 말랭이 등 김제의 인기 가공품을 홍보하고 기계에서 방금 뽑아지는 빵튀기, 롤케이크 등으로 김제지평선축제 이벤트를 실시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글로벌 육성축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K-Festival 2019'에 참가하여 김제지평선축제 홍보에 나섰다.

제 김제지평선축제의 매력이 수도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런 자리를 통해 김제지평선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김제시와 김제지평선축제를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또한 "우리의 전통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체험거리와 글로벌

육성축제에 걸맞는 글로벌 콘텐츠로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으니 올 가을 김제지평선축제를 반드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벚골제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와 김제시노동조합은 최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김제시장과 최지석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김제시-시공노조, 상생 기틀 마련

올해 단체협약 상견례

김제시와 김제시노동조합은 최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김제시장과 최지석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견례 자리를 갖고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에 서명했다.

이번 상견례는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출한 237개 단체협약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교섭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사측 교섭대표인 박준배 시장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협

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지석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선진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업무 추진의 파트너로서 단체교섭에 임하여 줄 것을 사측에 부탁했다.

한편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6년 출범이후 5대째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18년 4월 취임한 최지석 위원장은 "인사정의 실현과 복지공유 확대"를 기치로 조합원과 함께 공감하고 같이 기대하는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가정위탁부모 및 실무자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4일 보호 아동들을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 24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김제시 지평선아울림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탁 부모로 하여금 적절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정위탁보호제도 소개(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정찬우),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적 훈육(세이브더칠드런 조연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지평선아울림센터 교육장에서는 읍면동 가정위탁 실무자 1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가정위탁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동시에 마련되었다.

심미란 여성가족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가정환경에서 따뜻하게 돌보아준 위탁 부모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하수도 사업 국비확보 본격 추진

용진·운주 평촌·구이 원평촌 등 올해 103억원 투자

완주군이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도 사업 국비를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주군은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올해에만 국비 103억원을 확보해 용진읍, 구이면, 운주면 하수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용진 2

단계 사업은 용진을 삼삼리 일원에 총사업비 37억을 투자해 하수관거 3.6km를 정비한다. 구이 원평촌지구 사업은 평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하수관거 3.4km 정비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50(m³/일)을 신설한다.

또한 평촌지구 사업은 운주면 산복리 평촌의 2개마을에 총사업비 49억을 들여 하수관거 3.9km 정비 및 소

규모 하수처리장 50(m³/일)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수도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계획 중인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기존 정화조 처리로 인한 악취와 해충제거 등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마을 꽃길 조성

이서면 덕동2마을·구이면 화원마을

완주군이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마을 내 유흥지에 꽃길과 가로수를 조성했

다. 완주군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꽃길과 가로수 조성이 선정돼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지난 24

일 밝혔다.

이번 마을 꽃길 조성사업은 이서면 덕동2마을과 구이면 화원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서면 덕동2마을은 방치된 유흥지를 새롭게 탈바꿈시켰으며, 구이면 화원마을은 이름에 걸맞게 유흥지에 미니사과 등을 심어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청년지역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전북도와 함께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3개 분야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관내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 지역 기반사업을 육성하고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일부터 6월 2일까지 공고하고 6월 3일부터 16일 자정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최종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1980년생~2001년생)으로 청년 연령기간 중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에게 해당되며, 유사사업 참여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와 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jb.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12개월 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도박, 복권 등 사행산업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청년들의 사회 활동 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내한정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